

평화선언

66년 전, 그날을 맞이할 때까지 전쟁 중이라고는 하지만 히로시마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일찍이 시내에서도 손꼽히는 변화가었던 이곳 평화기념공원 터에서도 많은 가족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13세였던 남자는 말합니다. “8월 5일은 중학교 2학년인 저에게도 모처럼만에 하루 느긋하게 쉴 수 있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사이가 좋았던 동급생을 불러 강에서 시간가는 줄 모르고 저녁 때까지 모래밭에서 놀기도 하고 해엄치기도 하였는데, 한여름의 무더웠던 그날이 그 친구를 본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8월 6일 오전 8시 15분에 원자폭탄 한발이 그때까지의 생활을 근본부터 파괴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여자의 증언입니다. “체중이 40kg이었던 제 몸이 폭풍으로 7m나 날아가 정신을 잃었습니다. 정신이 들었을 때 주위는 캄캄했고, 소리가 없는 조용한 세계에 저 혼자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허리에 찢어진 옷자락을 걸치고 있었을 뿐인 알몸이었고, 원뿔의 피부가 5cm 간격으로 찢어져 말려 있었습니다. 오른팔은 하얗게 보였습니다. 얼굴을 만져 보니 오른쪽 볼은 거칠고 왼쪽 볼은 끈적끈적했습니다”.

원폭으로 모든 거리와 삶을 파괴당한 와중에, 사람들은 당황하고 다쳤으면서도 서로 도우려 했습니다. “갑자기 ‘도와주세요!’ ‘엄마, 살려줘요!’ 하는 비명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까운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에, ‘도와줄게’ 하고 소리치고 그쪽으로 가려고 했지만 몸이 무거웠고, 간신히 움직여서 어린 아이 한 명을 구해냈습니다. 양손의 피부가 벗겨진 저는 더 이상 구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

이것은 이 평화기념공원 터뿐만 아니라 히로시마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었던 광경이었습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없었다, 또는 가족 중에서 혼자만 살아 남은 것에 대한 죄의식을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피폭자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하여 원폭으로 희생된 분들의 말과 추억을 가슴에 담고 핵병기가 없는 세계를 바라며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 왔습니다. 그리고 피폭자를 비롯한 히로시마시민들은 일본 국내외로부터 온정어린 많은 지원을 받아 이 거리를 재건했습니다.

그 피폭자들은 평균연령이 77세를 넘는 지금도 거리의 재건에 힘쓰고 있으며, 핵병기철폐와 세계의 항구평화를 희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로 두어도 좋은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모든 피폭자들로부터 그 체험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확실하게 배우고 다음 세대로, 그리고 전세계로 전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이 평화선언을 통하여 피폭자의 체험과 평화에 대한 염원을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이는 세계의 도시가 2020년까지 핵병기 철폐를 실현할 수 있도록 나가사키시와 함께 평화시장회의의 폭을 넓히도록 힘쓸 것입니다. 더욱이 각국, 특히 임계 전 핵실험을 반복하는 미국을 포함하여 모든 핵 보유국에게는 핵병기철폐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길 바라는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세계의 정치가들이 히로시마에 모여 핵불확산 체제를 논의할 수 있는 국제회의의 개최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3월 11일에 동일본대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참상은 66년 전 히로시마의 모습을 방불케 하여 실로 가슴이 아프기 그지없습니다. 지진으로 돌아가신 많은 분들의 명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는 하루라도 빨리 복구되기를 바라며 재해지역 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방사선의 위협은 이재민을 비롯하여 많은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밑바닥부터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핵과 인류는 공존할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원자력 탈피를 주장하는 사람들, 또는 원자력관리를 한층 엄격하게 하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조급히 에너지정책을 재고하여 구체적인 대응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또한 피폭자의 고령화가 한층 진전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에게 ‘검은 비 강우지역’을 조기 확대함과 동시에 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알기 쉽고 따뜻한 원호대책을 실현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랍니다.

우리는 원폭희생자의 영령에게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표하며 “두 번 다시 원폭은 안된다”, “다른 누구도 이런 피해를 입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새로이 다지며 핵병기의 철폐와 영원한 세계평화 실현에 전력을 다할 것을 여기에 선언합니다.

2011년 8월 6일

히로시마시장 마쓰이 가즈미
松井 一實
번역 : Ability InterBusiness Solutions, Inc.